

금요 수필

만경강의 오지랖

아침마다 만경강변을 산책하다 보니, 어느덧 내가 만경강의 아침 손님으로 자리잡혀지게 된 모양이다. 강변에 들어서면 먼저 부스스 작에서 깨어난 풀매기들이 눈인사를 해오고, 삼을 뼉 함새들도 포르르 나무 위로 나아올라 반기는 문짓들을 해온다. 비낀기 무리도 뒹뒹뚱 앞장을 시고, 훌쭉훌쭉 돌아보다 풀매기 숲으로 몸을 숨겨 버리는 양생뺨은 고양이까지.

만경강은 완주에서 전주를 거쳐 흘러가는 거대 강줄기로서, 완주의 동상면 사봉리 계곡에서 발원해 고산, 소양, 봉동, 전주, 삼례, 해진, 군산을 거쳐 서해로 빠져나가는 대정령 여정이다. 2km 정도의 거대 강폭, 오랜가늌으로 모래바닥에 웅기종기 버드나무와 아카시아와 산딸 나무 등의 수풀이, 더러더러 뚝뚝 덩이가 있기는 해도 풀매기들로 강폭은 녹색 이불에 같이같이 덮여있는 모양새다. 이불을 떠올려나 현재들과 이불자락 잡아당겨가며 신광이를 밟으면 이런 시절이 떠오른다.

숨이 차오른 삼복의 연가에서 풀매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키제기로 쑥쑥 커져가고들 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속인들의 권그슬수와 달리 이곳은 어우렁더우렁 서로를 껴안으며 성장들을 해가고 있는 크양새들이다.

권이 풍지를 불어도, 고라니가 뿔뿔기를 해도, 고양이가 쥐살기 드잡이를 해도 파김치 열기며 휘갈아 오를 가시덤굴, 산삼 덩굴까지도 겹을 내어주는 모양

새들, 너그러이 품어 안은 만경강의 넓디넓은 가슴자락.

보이라! 커처이 쌓이고 쌓인 세월만큼이나 뻔뻔하게 늘어찬 강바닥의 고든 풀매기를 손바닥위에 올려놓곤 호기롭게 외치는 늦한 만경강의 저 담대한 몸짓.

이런저런 갈등과 괴로움 등으로 정리가 되지 않아 복잡거리던 나 자신으로서도 이곳에탄 들어서면, 우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 싶게 흘러당올러당 비워져버리고 떠나.

차유의 공간이기도 한 단경강.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곡우,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로 순환해가는 만경강의 순환질기.

아다지 오묘하고 절묘한 절기의 순환 대열에서 나 또한 자연스레 동화가 되어져버리고 다다.

아침이슬의 청순함, 이 청순함에 빠져들어 찍어도, 찍어도 질리지 않는 대양성을 카메라에 담아내며 행복에 젖어두고 있는 것이다

오전 9시가 훌쩍 지나 있다. 찍어도, 찍어도 밀려드는 모델들, 돌아갔어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만경강변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다.

바람이 있고 없고, 습도가 있고 없고, 날씨가 맑고 흐리고,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 친구들의 모양새와 빛깔은 천차만별이다.

오늘처럼 날씨가 청명한 날엔 초동초동 영롱한 이슬들의 다채로운 모양새에 다더욱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

흐리면 흐린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재현이 불가능한 이 모양새를, 우주에서 온 이 이승 친구들이아판로 나에게는 진짜 보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찍고, 찍고, 찍어도 연이어 잡히들지만 한 이슬 친구를, 이제 막 작에서 깨어난 달빛이꽃까지도 해맑은 웃음으로 소녀처럼 수줍게 일글을 더밀어온다.

황금계곡, 야생방풍, 갈퀴덩굴, 망종 등 고구 동아주지 않는 나의 보탬들, 뉘치고 뉘쳐나 크만늘에 에워싸여 찍고 있는데,

“사진사가 나타났다.”

자전거 하이킹 쪽이 뽕길을 내달리며 외치고 지나간다. 사진을 찍어오다 보니, 산책하는 이들이거나, 자전거 하이킹 쪽이거나 간에 나라는 존재가 사진사로 인식이 되어있는 크양이다.

그들로서는 별다른게 찍을 건데기가 없어 보인 풀매기를 눈여다보는 모양새가 우스꽝스런거나 한심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르나 말이다. 만경강 풀매기와 우주에서 온 친구들과의 만남, 이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알 까닭이 없는 그들.

이제는 두둑실 때오른 햇살에 우주에서 온 친구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사건을 보내온다. 완수, 전수, 삼례, 이곳 해진을 거쳐 흐르는 거대한 만경강, 보고 보아도 질리지 않은 보물창이리늘, 전수, 삼례, 이곳 해진은 산책인 이거나, 자전거 하이킹 쪽이거나 간에 다양한 풀매기들 마냥 우리네도 열려쥬쥬려 어올려온 푸르더푸른 단경강의 주변인들, 마한가지로 티격태격이진투구 아수라 속 세상 사람들에게도 넓디넓은 단경강의 오지랖을 책 걸쳐주고만 싶다.

“형경숙 작가는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서울예술신학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94년 월간 ‘순수문학’ 병어리 배구기로 신인상을 수상했다. 장편소설 ‘노란 다이아몬드’와 ‘이별식’, ‘바람의 그 언덕’ 외 다수의 단편집 ‘언덕 위의 수레바퀴’ 외 다수가 있다.

독자제언

‘고수익 부업’의 달콤한 유혹… 신종 SNS사기 주의보

최근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서 “하루 2시간, 재택으로 월 300만원 가능”, “넷글만 달아도 수익 발생”과 같은 문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부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신종 온라인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넷글 알바’, ‘쇼킹물 후기 작성’, ‘앱 설치 미션’, ‘인플루언서 모집’ 등의 형태

로 접근한다.

처음에는 소액의 보상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팀 입장비나 정산비를 내야 한다” 혹은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니 피해보상을 해달라”며 금전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입금하면 연락이 끊기거나 계정이 삭제되고, 환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 통장이나 계좌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대포통장·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경우, 계좌가 정지되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기의 공통점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문구다. 그러나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업체 실체가 불분명하며, 공식 사

이트 대신 오픈채팅방으로만 연락을 유도한다면 거의 대부분 사기라고 봐야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 업자등록 여부 확인 △선입금 요구시 즉시 차단 △통장·계좌 대여 금지 △SNS광고에 게시된 후기나 인증사진은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순쉬운 돈벌이의 유혹 뒤에는 늘 위험이 숨어있다.

‘고수익 부업’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경계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경택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사설

군사정권의 언론 탄압

동대구역의 동상 박정희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매우 잔혹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언론인이 정권의 걸림돌이 되면, 흔히 글을 못 쓰게 하거나 기고할 데가 없게 만들거나, 소속 언론사를 해체한다. 아니면 감옥에 가두거나 해외로 추방한다.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네가지만으로도 언론인이 무력화됐다. 그런데 박정희는 언론탄압의 차원을 뛰어넘었다. 쿠데타 다음날, 박정희는 명목상의 지도자인 장도영을 내세워 포고령 제10호를 발표했다.

1961년 5월 18일 자 ‘동아일보’는 “장도영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은 17일 밤 포고문 10호로써, 16일 상오 9시 현재로 계엄지역 내에 있어서 혁명 수행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 및 수색에 관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체포된 인물이 민족일보사 조용수 사장이다. 1930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그가 민족일보사를 세운 것은 1961년 1월 25일이다.

31세인 그는 창간 4개월 만에 체포돼 혁명재판소의 재판을 받았다.

군사정권은 조용수가 조총련계 자금으로 신문사를 만들어 북한의 평화통일론을 선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다. 1948년 10월에 발생한 여순항쟁의 여파로 박정희는 남로당 간부라는 사실이 발각돼 서울 남산의 헌병대 영창에 수감됐다.

이로 인한 콤플렉스를 털어버리고자 조용수를 빨갱이로 몰아세운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 조용수 및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자임추모관 사태

전주 자임추모관 사태가 깊어지면서 유족들이 상여를 들고 거리에 나선바 있다. 업체 간 갈등으로 유족 속탄 타들어 가는데, 지자체의 적극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제무 갈등 속 새 업체로 보안시설 소유권이 넘어가며 촉발된 분쟁 때문이다.

장사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단법인 허가를 얻지 못한 새 업체가 보안당을 폐쇄하는 일도 벌어졌다.

1,500명의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수없이 호소했다. 사발식을 하고 눈물로 하소연했다. 한시적으로 참배는 가능하지만, 보안당 정상화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측이 재산 분쟁과 고소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새 업체는 법인 허가를 요구하며 전북도와 행정소송 중이다. 유족들은 각각 법인 설립과 보안당 감독 권한을 가진 도(道)와 전주시가 책임을 떠넘긴다고 지적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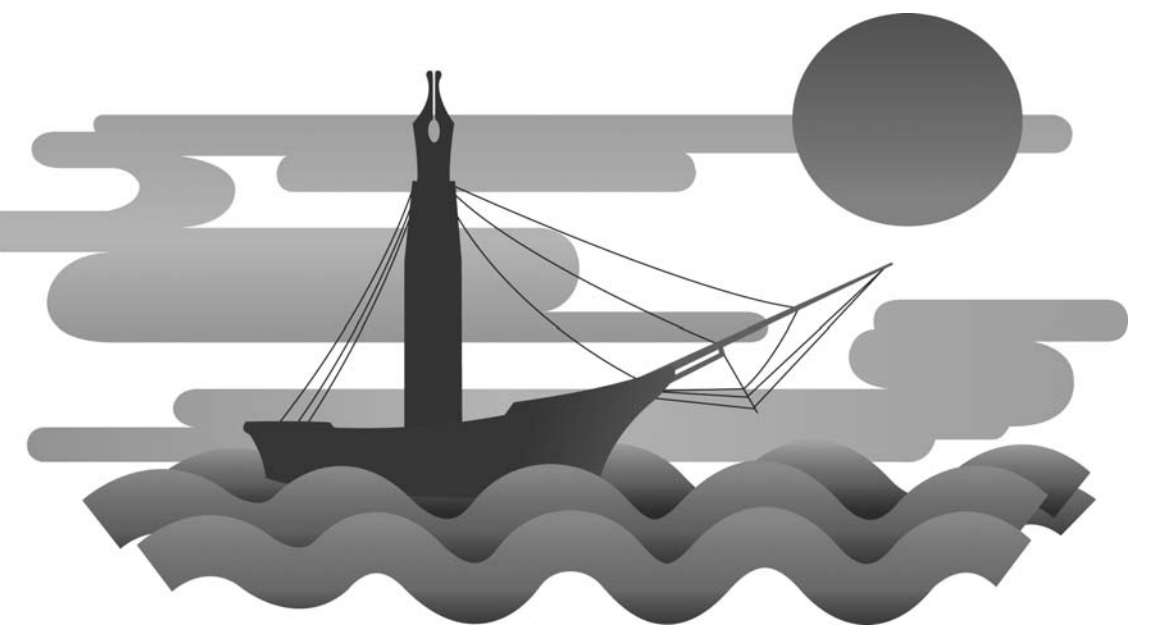
제3의 업체가 시설을 인수하거나, 공공 봉안당으로 유골을 옮기는 등 지자체 중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유골의 승계 과정 등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유골만 지켜주고 정상적으로 추모관 운영하게 도와준다면 그거 하나 바랄 뿐이라고 한다. 지역 정치권도 보건복지부의 장사 법인 설립 요건 강화와 지자체의 좀 촌한 감독을 촉구했다.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사전 검토 미비, 장사 시설의 법적 책임 주체 불분명, 관리·감독 체계의 부재 등 제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인근 수목장에서조차 업체 변경에 따른 권리 승계 등을 두고 피해가 커지고 있어, 적극 행정이 시급하다. 그동안 당국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어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조속한 해결 방안을 촉구한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